‘감독 데뷔’ 배우 이정재 “용기를 내보고 싶더라고요”

첩보스릴러 ‘헌트’ 각본 쓰고 연출까지 “처음엔 내가 해도 되나 망설이기도 해”

“처음에는 출연 제안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제작도 맡게 됐죠. 또 그러다가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게 된 겁니다.”

배우 이정재는 영화 ‘헌트’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제작을 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이번 작품으로 국내에 흔치 않은 배우 겸 감독이 됐다. 이정재는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신드롬으로 글로벌 스타가 됐고, 그 직후에 감독 데뷔작을 내놓는다. 연출 데뷔작으로 올해 칸국제영화제에도 다녀왔다. 드라마틱한 행보다.

“물론 저는 영화 일을 오래 했죠. 하지만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건 연기와 다른 일이잖아요. 많이 주저했어요. ‘내가 해도 되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그렇게 조금씩 ‘헌트’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영화 ‘헌트’는 1980년대 안기부가 배경인 첩보스릴러물이다. 안기부에 침입한 스파이를 색출하는 작업과 대통령 암살이라는 사건이 맞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는 안기부 해외팀 차장 박평호를 연기했다. 그는 “어렸을 때 액션첩보영화를 많이 봤다”며 “‘헌트’만의 새로운 첩보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작품은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점과 함께 이정재와 정우성이 1999년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만에 투톱 주연을 맡은 영화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973년생 동갑내기인 이정재와 정우성은 ‘태양은 없다’에서 만나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혼의 단짝’으로 지내왔다. 두 사람은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박평호와 대립하는 안기부 국내팀 차장 김정도를 연기한 정우성은 “이전부터 함께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헌트’를 우리끼리 만족하고 끝내는 영화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나리오를 볼 때도 우리가 단순히 즐기면서 하는 작품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나 없이도 이정재가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작품인지 보려고 했어요.”

‘태양은 없다’에서 지금까지도 청춘을 상징하는 영화로 남아 있는 건 이정재와 정우성이 당시 좋은 연기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 관객은 20대였던 두 청춘스타가 20여년이 흐른 뒤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대표 배우가 돼서 어떤 합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다. 정우성은 “호흡이라는 건 관객이 평가해주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좋은 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화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정재는 ‘태양은 없다’를 촬영했을 때와 ‘헌트’ 촬영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며

정우성과 호흡에 관해 얘기했다. “‘태양은 없다’ 시나리오에는 여백이 조금 있었어요. 감독님이 각자 스타일로 채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영화는 찍어야 할 분량도 많았고, 장르 특성상 구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게 있어서 자유롭게 시도해보지는 못했어요. 긴장감이 높은 현장이었죠. ‘태양은 없다’ 때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재밌었습니다.”

영화 ‘헌트’는 다음 달 10일 개봉한다.

블랙핑크, 1년10개월 만인 8월 컴백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 나서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1년10개월 만에 컴백한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오는 8월 신곡을 발표한다.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은 2020년 10월 첫 정규 앨범 ‘디 앨범(THE ALBUM)’ 이후 처음이다.

블랙핑크는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디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모두에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총 140만 장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며 K팝 걸그룹 최초의 밀리언셀러(한터/가온차트 집계 기준) 반열에 올랐다. 선공개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과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Ice Cream)’으로도 인기를 누렸다.

특히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활동 제약이 컸음에도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블랙핑크는 현재 새 앨범 녹음 작업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달 중 뮤직비디오 촬영에 돌입한다. YG는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블랙핑크다운 음악이 다수 준비됐다”고 예고했다.

블랙핑크는 이번 신곡 발매와 함께 연말까지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에 나선다. 동시에 대형 프로젝트도 꾸준히 선보인다.

블랙핑크는 완전체 활동 공백기 동안인 작년에 로제와 리사의 솔로 활동으로 호응을 누렸다. 이번 앨범에선 그간 해온 솔로 활동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750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이 분야 1위다. 그룹과 멤버 개개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도합 3억 1800여만 명에 달한다.

‘데뷔 2년도 안 된’ 엔하이픈, 2번째 밀리언셀러

발매 2일 차, 총 113만638장의 판매량 기록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새 앨범 발매 이틀째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추가했다.

6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발매된 엔하이픈의 미니 3집 ‘매니페스토 : 데이(MANIFESTO : DAY) 1’은 발매 2일 차인 전날 총 113만638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음반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엔하이픈은 데뷔 2년도 되지 않아 정규 1집 ‘디멘션 : 딜레마(DIMENSION : DILEMMA)’에 이어 두 번째 ‘밀리언셀러’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빌리 프랩이 속한 하이브 레이블즈의 현 보이그룹들은 모두 밀리언셀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빅히트 뮤직의 방탄소년단(BTS)·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세븐틴(SVT)은 100만장 이상은 여유롭게 팔아치운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은 단일 앨범 판매량이 300만장과 200만장은 거뜬하다.

해외에서도 인기다. ‘매니페스토 : 데이 1’은 발매 직후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오르는 등 국내외 각종 차트를 휩

쓸고 있다.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Future Perfect)’(Pass the MIC)는 일본 최대 음원사이트 라인뮤직 5일 자 일간 톱 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매니페스토 : 데이 1’은 어른들이 정의한 성공에 의구심을 품게 된 일곱 소년들이 ‘더 이상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퓨처 퍼펙트’는 국내 K팝 신에서는 생소한 시카고 드릴 장르다. 자신들의 소명을 깨달은 소년들이 또래 세대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갈 테니, 함께 가자’고 선언하는 곡이다. 엔하이픈은 이 곡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랩에 도전했다.

“탈퇴하기로 했잖아” 15년 차 소녀시대 남다른 입담… ‘소시탐탐’

소녀시대 데뷔 15주년 기념 프로젝트 예능

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5년 차의 입담을 자랑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5일 방송된 JTBC TV예능 ‘소시탐탐’ 1회에서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며 컴백을 앞두고 뭉친 소녀시대의 모습이 그려졌다. 서현은 드라마 촬영으로 불참했다.

이날 멤버들은 사전 상의 없이 각자 소녀시대 히트곡들의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모두 다른 콘셉트를 선보이자 효연은 “서로 얘기 안 했는데 안 겹친게 신기하다”고 놀라워 했다. 이에 유리는 “콘셉트 겹치면 벌칙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태연은 “겹치면 탈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술 더 뜬 수영은 “아 겹칠걸”이라고 아쉬워했고 써니는 “(탈퇴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다”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유발했다. 그렇게 자리한 멤버들에게 써니가 컴백 반응을 봤냐고 묻자 멤버들은 “몰라서 아직 못 봤다” “요즘은 어디서 봐야 하느냐”고 답했다. 팬들은 “고맙다 XX” “XX 큰 거 온다. 미친” “소시 컴백이라니 삐걱삐걱 거려 볼까” 등 너무 좋은 나머지 거칠고 격한 반응을 보인 팬들의 마음에 소녀시대도 기뻐했다. 또 “소녀시대 컴백이 진짜 K팝 기강 잡는 일이긴 한가 봐. 아직 트위터 트렌드 트윗 수 8만”이라는 댓글이 소개되자 써니는 “우리도 기 없어서 기강 못 잡는다” 수영은 “그런 거 아님”이라고 말했다.

한 팬은 “소녀시대 컴백 대단하다. 스케줄 맞추기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동창 7명도 연말에 하루 날 잡아 만나기도 힘든데. 저건 진짜 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라 가능한 거다. 서로에 대한 팬들에 대한 보답 앨범”이라고 의미를 짚었고 이에 멤버들은 “도대체 누가 쓴 거냐” “완전 맞는 말이다”라며 공감했다.

한편 계속 반응을 보던 수영은 “4K 직캠이 뭐야?”라고 물었고 멤버들은 “진짜 모르냐”며 “방송사에서 직접 올리는 고화질 음악방송 직캠”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효연은 “요즘은 그걸(4K) 더 좋아한다”며 변화된 방송 환경에 ‘소녀시대’ 데뷔가 정말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했다.

‘소시탐탐’은 소녀시대 데뷔 1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탐’나는 소녀시대의 ‘탐’나는 예능 정복기 프로그램이다.

여수시, 여섯번째 웹드라마 ‘윤슬’ 해외서 ‘기염’

제8회 독일 기센 웹페스트 출품, 베스트 커스텀 디자인상 수상

여수시가 바다와 자연, 관광을 배경으로 자체 제작한 저예산 웹드라마가 해외 웹드라마 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섯번째 웹드라마 ‘윤슬(Yunseul)’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독일서 열린 제8회 독일 기센 웹페스트 Die Seriale 2022에 출품돼 ‘베스트 커스텀 디자인(Best costume Design)’상을 받았다.

독일 기센 웹페스트 Die Seriale 시상식에서 호명된 ‘윤슬’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 서울 등 웹드라마 영화제에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여수시가 2021년 제작 발표한 ‘윤슬’은 배우 손창혁, 정예서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과 백제 귀족 가문의 영애 별녀,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등 3명의 주인공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퓨전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출연진은 여수밤바다와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잔잔한 연기를 보여줬다. 윤슬은 지난해 제작과 동시에 제7회 서울웹페스트에서 ‘베스트 촬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여수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자체 제작 웹드라마를 발표하면서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국내와 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신지끼의 사랑이야기(2016), 여명(2017), 마녀목(2018), 동백(2019), 호접몽(2020), 윤슬(2021) 등 총 6편 모두 국제 웹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첫 작품은 2500만원의 저예산이 투입됐으며, 이후 편당 수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조금씩 보탰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담은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황금늑대상을 수상하면서 해외에 사건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일곱번째 드라마 ‘무지개’ 제작을 마무리했다.

전라좌수영에 배속된 악공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무지개’는 오는 8월 제8회 서울웹서울웹페스트에 초청돼 베스트 웹시리즈 오브 올장르, 베스트 드라마, 베스트 에디팅, 베스트 액터, 베스트 앙상블 캐스트, 베스트 서포르팅 액트리스 등 6개부문 수상후보로 올랐다.

제8회 서울웹페스는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롯데시티호텔 엘 컨벤션에서 해외 28개국 151편 국내 40편 등 총 191편이 여수웹드라마 ‘무지개’와 수상 경쟁을 벌인다.

시나리오 작성과 제작을 담당한 김상욱 팀장은 “저예산 고효율의 웹드라마가 뉴미디어시대 K-한류드라마를 타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웹드라마는 관광휴양도시인 여수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움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 전해지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